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⑦

문명품의 끝 부분에서 열 분 보살이 함께,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이옵니까?" 라고 질문하자 선생님이 총평하듯이 문수보살의 계승이 펼쳐진다.

"어래의 깊고 깊은 저런 경계는 그 분량이 허공과 평등하여서 일체의 중생들이 들어가지만 실로는 들어갈 데 없는 것이라. [一切衆生入而實無所入]"

인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오 믿음으로 알 경계도 또한 아니니 그 성품 본래부터 청정하여서 이런 것을 중생에게 열 어 보이네."

위의 계승은 <불지론(佛地論)>이란 책에서, "부처님의 경계는 허공 외에는 비유할 만한 것이 없다" 하였고, 이어서 "들어가지도 흔적이 없으니 비로소 진여라 할 수 있다. 진여는 본래 넓으면서 깊으니 연사를 초월

다. 그래서 140여 가지 원을 끝 없이 발원한다. 이를 10가지로 나누어 1.재가시절의 원 2.출가 수계할 때의 원 3.좌선할 때의 원 4.행각할 때의 원 5.용변과 손발 씻을 때의 원 6.걸식하고 도행(道行)할 때의 원 7.성(城)에 들어가서 걸식할 때의 원 8.돌아와서 씻을 때의 원 9. 암송하거나 예불할 때의 원 10. 휴식과 잠잘 때의 원을 말한다. 다음의 계승을 살펴보면 모두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는 명구들 일 것이다.

"보살이 집에 있을 때에는 마땅히 이처럼 원하라. 중생들이 집의 본성이 공(空)함을 알아서 그 핍박을 면하기를 원할지이다 / 부모를 효성으로 섬길 때 [孝事父母]에는 마땅히 이처럼 원하라. 중생이 부처님을 잘 섬겨서 온갖 것을 보호하고 공양하기를 원할지이다 / 수염과 머리털을 깎을 때에는 마땅히 이처

마음 비우면 번뇌 없다

부처님 세계 가없는 허공과 같아

하고, 깊으면서 넓으니 어찌 끝을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래서 아래 계승에서, "분별심으로 아는 것은 진실로 아는 것이 아니다 [分別非眞知]. 언뜻 알았다 하더라도 또한 진실로 아는 것은 아니다 [暫起亦非眞知]"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위의 계승도 흔히 사찰의 한 귀퉁이에 비바람 맞고 서있는 편액에 쓰여진 친숙한 계승이지만, 소중한 법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앞에 소개한 대로 물속에서 목발라 하고 눈을 감고서 안 보인다" 고 비유한 것일까?

다음은 제11 정행품이다. 화엄에서는 온갖 것이 선 아님이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쓸 것 [善用其心]을 강조한다. 곧 모든 것을 좋은 것 [善]으로 본다. <법화경>에서는 증상만(增上慢)과 악성차익(惡性車匿)을 물리치는 데 [性俱說] 비하여, 화엄에서는 일체를 선으로 보는 것 [性善說]이다. 그래서 유위(有爲)에서는 무위(無爲)를 보려고 하고, 무위를 보면 더욱 수순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이

림 원하라. 중생이 길이 번뇌를 여의고 구경에 적멸하기를 원할지이다 / 대소변을 볼 때에는 마땅히 이처럼 원하라. 중생이 탐진치를 버려서 죄법(罪法)을 깨 곳이 제하기를 원할지이다"

"만약 빈 바루를 볼 때에는 마땅히 이처럼 원하라. 중생이 그 마음이 청정하여 텅 비어서 번뇌가 없기를 원할지이다 [空無煩惱] / 만약 가득 찬 바루를 볼 때에는 마땅히 이처럼 원하라. 중생이 온갖 선법을 구족하여 기뻐하기를 원할지이다 / 만약 밥을 먹을 때에는 마땅히 이처럼 원하라. 중생이 선열로써 밥을 삼아서 법화가 흥만하기를 원할지이다 [禪悅爲食 法喜充滿]"

보살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항상 위와 같은 마음을 기초로 하여 모든 공덕을 닦아 나간다는 내용이다.

때마침 24절기 중 곡우(穀雨)와 입하(立夏)가 든 이즈음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성불의 대원'을 비는 기도를 하도록 하자.

■ 불교사상연구소 연구원



그림·문병성

만물은 더불어 사는 존재

불교와 과학 <26>

생명체이거나 무생명체이거나 그 탄생은 모두 신비롭기만 하다. 생명을 넘어 우주는 더 그러하다. 천체물리학에서 본 우주의 탄생은 빅뱅이라는 대폭발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주 대폭발을 통한 우주의 탄생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원래 무엇인가가 있는 것에서 다른 방식의 있는 것으로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과거의 있는 것과 새로이 탄생되어 있는 것 사이에는 소위 특이점(critical point)이라는 경계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들은 서로 만나볼 수 없는 전혀 다른 물리계의 영역이다. 전혀 다른 물리계란 우선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우주와 전혀 다른 물리계라면 지금의 시간 개념 즉 과거에서 미래로 한 방향성으로만 화살처럼 앞으로만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시간일 수 있다. 이를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맞지 않는,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가 감소

하는 방향의 시간 개념이라고 말한다. 물론 대폭발 이전의 물리계에 대한 측정이나 실험적으로 검증된 내용은 당연히 있을 수 없다. 어쨌든 우주 탄생의 시점을 경계로 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 사이에는 서로 우주적 기억의 다리가 놓여 있지 않아 서로 대화할 수 없는 분리의 성곽이 놓여져 있다.

현재 물리학의 수준에서 볼 때 우주 대폭발의 시점을 140억 년에서 170억 년 전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 50억 년 전쯤 태양계가 탄생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함께 말이다. 태양계의 탄생은 참으로 신비 그 자체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적절한 주기를 갖고 운동하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다. 더욱이 지구의 탄생은 적절한 대기권과 풍부한 물, 태양열과 대기권의 조화를 통해 생긴 지구 표면의 적절한 복사온도, 물과 공기의 대류 현상 등 지구의 우주 한 가운데서 대서양 모래 한 알에 붙어 있는 박테리아 하나보다도 작은 것이지만 우주의 총체적 신비를 모두 갖고 탄생한 듯한 신비로움을 주었다.

이런 지구의 조화는 결국 생명체를 탄생시켰다. 진균 세포에서부터 수생 생물로, 식물류와 동물류, 그리고 나중에 동물은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종의 분화가 단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거듭되었다. 생명성의 특징은 먼저 지구에 대한 반응을 일정한 패턴으로 보인

다는 점과 생명체의 자기 존속을 위하여 에너지의 유출입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종의 유지를 위하여 자기와 같은 생명체를 증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 자체가 생명의 대단한 신비로움이다.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나 개천에 날린 돌 같은 무생명체도 마찬가지이다. 강물이나 돌들도 소나무나 물고기에 비하면 생명 아닌 무생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우주의 탄생 이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의 신진대사나 진화나 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는 점이다. 강물이나 소나무나 아프리카 호랑이나 인간 역시 같이 함께 그리고 더불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더불어 살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죽어 있는 무생명이다. 더불어 살 수 있음이 결국은 가장 큰 신비로움이다.

한 사람의 인체구조에서 볼 때 모든 장기와 인식기능 구조가 모두가 서로서로 누가 맡아 해도 너무 조화로운 연결이 되어 있다. 먼지나 돌이 날아 오면 우리의 눈은 자동적으로 깜짝거린다. 배가 고프면 자동적으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경보음을 울려 준다.

외부와 온도 차이가 나면 자동적으로 피부에 소름이 생겨 온도조절을 해준다. 나무의 나이테는 세월의 기억장치를 보여주는 식물의 신분증이기도 하다. 더더욱 크나큰 생명의 신비로움은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적절한 시간 안에 스스로 소멸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죽음은 탄생의 시작을 다시 알리는 중요한 생명의 신호이며 또 다른 가장 큰 신비로움이기도 하다.

5월 1일은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그분의 탄생은 우주의 시작과 같이 하였지만 뜻 중생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탄생을 인간의 생사유전에 맞추어 또 다시 보여 주었다. 그래서 우주의 탄생과 달리 부처님의 탄생은 탄생 전과 탄생 후를 연결하는 기억의 다리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탄생은 만물의 조화와 더불어 있음을 알려주는 생명의 신호이기도 하다. 작은 인연과 큰 연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광대하기도 하다. 한 올 털끝 위에서도 우주의 광대함이 다시 펼쳐져 있듯이 가장 작은 인연에도 가장 큰 연기의 네트워크가 얽혀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로움이며 신통변화의 조화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탄생은 더불어 살 수 있는 희망을 깨어나게 하는 개울가의 한 반딧불이기도 하다. 그 작은 반딧불이 광대한 우주의 탄생을 과거를 미래처럼 비추어 주고 있다.

■ 최종득/상지대 교수(jdchoi@chiak.sangji.ac.kr)

2400만 에이즈 환자 자비의 손길 펼친다

지구촌 불교 / 불교 에이즈 프로젝트

미국의 한 불교단체가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 돕기에 나섰다. 화제의 단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불교 에이즈 프로젝트'(Buddhist AIDS Project). 이 단체는 원래 미국 내 에이즈 환자나 그 가족만을 도와 왔는데, 지난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3회 국제에이즈회의를 계기로 자비의 손길을 아프리카까지 확대한 것이다. 불교 에이즈 프로젝트의 스티브 페스킨드 씨는 "에이즈 치료약은 미국이나 독일의 제약회사들이 만들고 있으며, 그 가격이 고가(高價)여서 아프리카와 같은 후진국의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불교에이즈프로젝트에서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는 전세계 에이즈 환자 70%에 달하는 2천4백50만여 명이 사하라사막 이남지역에 밀집해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 3백80만여 명이 에이즈로 숨졌다. 그들 중 4분의 1은 어린이이다. 그런데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후진국 에이즈 환자로



다국적 제약회사에 에이즈 치료제 가격을 낮출 것을 호소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사람들.

비싼 치료제 가격인하 캠페인 아프리카서 의료봉사 활동도

서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높은 가격으로 치료약을 유통시켜 비난을 사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불교 에이즈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 치료약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또한 제약회사를 방문해 아프리카 등 후진국의 에이즈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회사 스스로 치료약의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세계적 제약사인 머크사는 성인의 36%가 에이즈에 감염된 보츠와나의 에이즈 치료를 위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재단'과 함께 1억 달러의 약품과 자금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게이츠재단이 보츠와나 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해 5년 간 5천만 달러를 기부하고 머크사는 이 프로그램 관리와 값비싼 에이즈 치료제 기증을 통해 5천만 달러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불교에이즈프로젝트는 최근 나이지리아에 지역사무소를 개설하고, 아프리카 현지에서 국제 의료봉사단의 활동을 돕는 한편 에이즈 환자를 돕는 데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불교 에이즈 프로젝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 18살 나이 이하에서 모인 아프리카 대륙의 정상들은 "수백만 가구의 가족들이 좌절에 빠졌다. 아프리카 어린이의 5%가 에이즈로 부모를 잃었다. 1천2백만여 명이 넘는 부모들은 무력감에 몸서리칠 뿐이다. 아이들의 앞날은 암담하기만 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 원조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에이즈 관련 국제 단체인 'HIV/AIDS 치료 대중운동' 측은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7억 달러 수준의 지원 규모에서 10배 이상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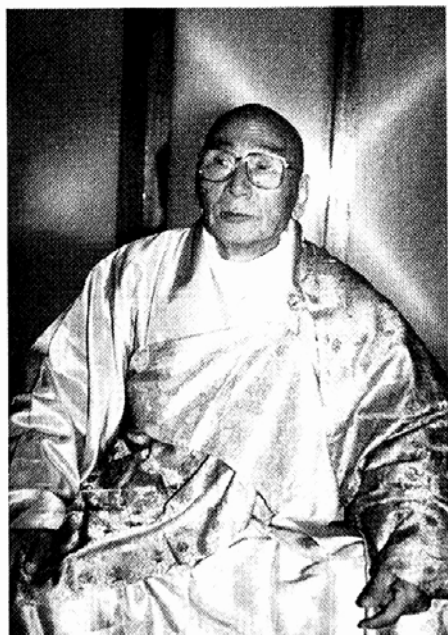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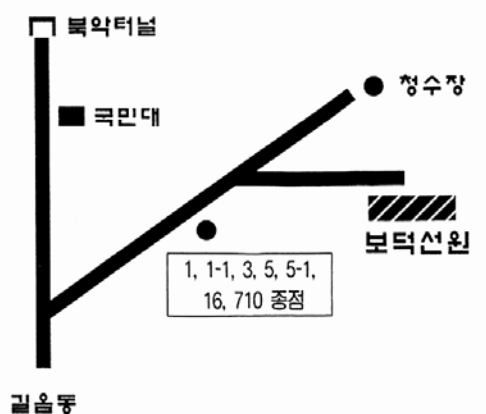
奉 보덕선원 서암대중사 하안거 결제 대법회 祝

보덕선원에서는 서암 대중사의 지도하에 신사년 하안거 결제 정진 대법회를 병행합니다. 정진하실 비구스님과 보살님들께서는 하안거에 많은 결제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45년 (2001년) 5월 8일 (음력 4월 15일) 10시
장 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 4동 824-1호 삼각산 보덕선원 대법당
문의처 : 보덕선원 02-914-4235

- 교통안내
 - 지하철 : 4호선 성신여대 입구 하차 → 일반버스 (하단) 탑승 종점 하차
 - 일반버스 : 1, 1-1, 3, 5, 5-1, 16, 710 종점 하차

찾아 오시는 길



서암 대중사